

건설방식 갈등... 돌고 돌아 '제자리'

광주시의회 저심도 방식 고수... 市는 "기존 방식으로는 안된다"
건설비 절감 방안 찾기 시민토론회도 성과 없이 원점서 맴돌아

길 잃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놓고 시의회와 광주시가 견해차이가 커 건설방식 결정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6일 전 의원 간담회를 통해 건설방식 요구안을 결정할 예정이며,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자체 의견수렴 절차를 가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1일 예정됐던 '건설방식 결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했고,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 간 견해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건설방식 최종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는 저심도 방식을 고수하면서 사업비 절감방안을 찾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시는 경제성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방식으로는 힘들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날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절감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성과없이 저심도(低深度) 방식과 공법에 대한 안전성 문제만 떠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절감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주로 원안 고수를 전제로 저심도 방식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애초 이날 토론회는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사업비 절감을

더 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측이 불참해 '반쪽' 토론회가 됐다.

대신, 전문가들은 저심도 모듈식 공법이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구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역임한 안용모 경일대 석좌교수는 "도시철도는 정밀한 안전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마루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도로 사업에 이 공법을 미리 적용하는 등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희 도화엔지니어링 상무도 "신공법인 모듈식 개착공법은 현재 신기술 등록을 신청한 한 상태"라며 "실제 시공 사례가 없어 완성되지 않은 공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호 삼영기술 도로 및 항공기술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측이 주장한 건설비 절감 방안에는,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이 다소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일부 시의원들과 방청객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추진 의지를 비판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16일 오전 '의원 정책총회'를 열고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광주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건설방식 요구안을 결정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원안을 고수할 경우 전문가들이 지적한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등의 과제를 떠안 수 있고,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의견과 배치될 경우 '정치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미나리는 추워야 제맛" 매서운 겨울바람이 간간히 불어온 15일, 나주 노안면의 한 미나리밭에서 아낙네들이 겨울 진미인 미나리 수확에 한창이다. 최재용 드론을 이용해 촬영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알립니다

3·1절에는 3·1마라톤



제51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플코스·하프코스...아시아문화전당 출발

2016년 2월 5일까지 접수

나누어 진행됩니다.

최고의 전통, 최상의 코스, 최선의 진행을 자랑하는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내년 3월1일 개최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에서 출발, 영산강변을 따라 승촌보 반환점에서 돌아와 상무시민공원에 끝나는 코스로 이루어진 이번 대회는 전국의 마라톤 마니아들이 애호하는 명품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세계 만방에 알린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는 광주일보 3·1절 마라톤은 2016년 제51회 대회를 맞이합니다. 호남은 물론 전국 마라토너들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치러지며 플코스와 하프코스로

광주일보사는 이번 대회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 가족과 직장, 동호인들 간의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봄의 힘찬 기운이 약동하는 대지를 함께 달립니다.

■ 일시 : 2016년 3월 1일(화) 08 : 30 ~ 16 : 00

■ 출발시간 - 플코스 08 : 30, 하프코스 08 : 35

■ 종목 및 코스

- 플코스 : 아시아문화전당 → 승촌보 반환점 → 상무시민공원 끝

- 하프코스 : 아시아문화전당 → 서창교 반환점 → 상무시민공원 끝

■ 마감 : 2016년 2월 5일(금)

■ 문의 : 인터넷 홈페이지(http://mara.kjmedia.co.kr) (062)220-0541

■ 주최 : 광주일보, 아시아문화

■ 주관 : 광주육상경기연맹, 전남육상경기연맹, 마라톤세상

■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지방보훈청

光州日報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광주·전남 33명

내년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5일 시작되면서 120일간의 총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광주와 전남 지역 각 선관위에는 총 33명(광주 9명·전남 2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일부 예

비후보들은 국립 5·18 민주묘비 참배로 출정을 알렸으며, 일제히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가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광주에서는 김명진 전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강도석 한민족 통일문제 연구소장이 남구에서, 진선거 전 광주시의회

부장이 북구에서, 이형석 광주시 경제부시장·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시민활동가 노남수씨가 북구에서 각각 출마했다. 임한필 경민대 겸임교수가 광산구에, 김중구 공인중개사와 문정은 정의당 광산구위원회 위원장이 광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당별로는 새정치민주연합 5명, 정당 1명, 무소속 3명이었다.

인구수 미달로 선거구 통합 등이 예상되는 동구의 경우 선거구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아 단 한명의 예비후보도 등록하지 않았다. <2면으로 계속>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무주공산' 여수갑 벌써 4명 목포 선거구에도 5명 몰려

2015 국내·국제 10대 뉴스 ▶8면



사람이 문화자산-국창 임방울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연합뉴스, 세계를 연합하다!

대한민국 뉴스의 중심 연합뉴스는 전 세계 83개 뉴스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60여명의 해외 취재망과 6개 외국어 뉴스 서비스를 통해 세계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연합인포맥스